

## 서울시립대, 2023년 단기 해외 탐방 운영 내년부터 인원·예산 확대



서울시립대가 6월 29일 100주년기념관에서 '2023년 학생 단기 해외 탐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탐방은 7월 5일부터 8월까지 대학생들이 해외를 방문해 문화, 진로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해외 탐방에는 서류·기획 발표·면접을 통과한 25개 팀(96명)이 선발됐다. 탐방 지역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총 11개국이다.

서울시립대 143학군단 63기 후보생으로 구성된 팀 '육삼이들'은 미국에 방문해 난개발 등 도시 문제를 탐방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컴퓨터 과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Start, Up' 팀은 실리콘밸리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 동향을 분석한다. 시각디자인 전공 소모임 '두들즈'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로 책 출판 기행을 떠난다. 디자인 학과 팀은 미니멀리즘 디자인 탐방, 환경공학부 팀은 하수도 탐구, 도시사회학과 팀은 도시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공간 문제 분석을 목표로 일본으로 떠난다.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팀 'E.T'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를 비교 분석하고, 로봇 박람회를 견학한다.

서울시립대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높은 지원 경쟁률을 감안해 2024년부터는 참여 인원과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세대, 2024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사립대 1위

연세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24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76위(아시아 사립대 1위)에 올랐다. 해당 평가에는 전 세계 2천963개 대학이 참여했고, 이 중 1천503개 대학의 순위가 매겨졌다.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선 기존 평가 지표인 '학계 평판' '졸업생 평판'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에 '국제 연구 네트워크' 'ESG 지표'를 추가했다. 연세대는 2년 연속 아시아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업무 협약 체결

중앙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국가 R&D 지식·정보 자원 및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활용'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국가 R&D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세미나를 열거나 기술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KISTI가 구축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구 데이터, 오픈액세스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대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 구성원들이 교내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